

“전대미문의 재난이 닥쳤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지요”

파워레이디 고경숙 켈거리 한인여성회장



2번 하이웨이인 Deer Foot Trail North를 타고 1번 고속도로를 지나 공항쪽으로 5분 정도 올라가 32 Ave NE 출구로 빠져나가면 왼편 상업지구안에 있는 켈거리 코리아 아트클럽이 있다.

이곳은 얼마전 켈거리 한인여성회가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곡물과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했던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2천SQF 정도의 활동실 맞은편 벽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고 북 장구와 같은 한국의 전통악기와 왕과 왕비 가입었을 것같은 화려한 옷들이 보인다.

아트클럽에선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물놀이 난타 고쟁 살풀이춤 부채춤 등 여러가지 전통 한국 예술들이 항상 연습되고 있고 레슨도 진행된다. 켈거리에서 한국전통문화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살사 라인 줌바 댄스 교실도 열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공모전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켈거리 한인 여성회도 또한 이곳에 자리잡고 있다. 켈거리 코리아 아트 클럽 회장이 바로 고경숙 켈거리 한인

여성회장이기 때문이다. 두 단체의 장을 맡고있는 만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고경숙(Anna Ko)여사를 만났다. 한인 사회는 물론 아시안계 이민 사회들과 주류사회를 넘나들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파워 우먼이다. 자그마한 체구에 일흔이 훌쩍 넘은 연세이지만 지칠줄 모른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어 또한 유창하다.

고경숙회장에게 켈거리 한인 여성회와 코리아 아트 클럽에 관해 이모저모 질의해 보았다.

Q: 최근 나코비 19 극복을 위한 곡물나눔과 무료 마스크 배포 행사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행사를 위한 예산과 봉사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A: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이 아닙니까?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발로 뛰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습니다. 곡물나눔의 경우는 Koralta Agri 를운영하고 계시는 한인 사장님께서 5천불 이상의 곡물을 후원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겸손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꺼리셔서 저희 단체에 위탁하여 필요한 분들을 도와 주실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라이온즈 클럽에서도 저희 여성회와 뜻을 같이하여 2천달러 상당의 쌀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길을



찾으면 길이 열린다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면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료 마스크 배부에 관한 의견은 김희정 부회장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베트남의료업체에서 마스크 1천3백장을 기증해주시므로써 나눔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한개 5불로 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로 켈거리 여성회를 베트남 여성회가 도움으로서 멀티 컬처럴 모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여성회 회비도 있지만 TD뱅크등 여러기업들도 세미나 등 사안별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켈거리 한인 아트클럽은 재능있는 한인여성들이 모여 한국전통문화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6년전 시작했는데 왕

성한 활동들이 주목을 받아 지금은 주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정부는 카지노수입의 2%을 주내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켈거리만해도 비영리단체가 1000군데가 넘을 정도로 지원신청 경쟁이 심한데 저희 아트 클럽은 2년만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과 공연을 통해 주정부에서도 좋은 인지도 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고 계시니 더욱더 분발하여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하여 많은 교민들을 돕겠습니다.

Q: 한국전통문화 여름캠프 포스트를 보니 아주 세련되고 멋있었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이 봉사한다는 뜻이겠지요?

A: 그렇죠, 자원봉사 인원은 주로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과

페이스북 혹은 온라인 홍보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봉사자 분들은 재능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트남여성회 중국여성회 말레이시아여성회 다민족 이민자그룹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므로 그들도 필요할 경우 자원봉사에 열심히 참가해주고 있습니다.

8월초 전통예술캠프 시작으로 프로그램 재기동

Q: 제가 볼때 두 단체의 활동과 프로그램들이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A: 정말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인 여성들을 발전시키고 이민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주류사회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교육세미나, 한인여성회의 진로, 취업교육, 은행에 관련된 업무, 이민 세미나 등이 있고 알버타 가요제, 전통 여름캠프, 김치대회등등 여러가지 많은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켈거리 한인 여성회를 캐나다 정부나 시민들이 주목하게 되고 저희들이 캐나다 주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다져주게

되는것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시류에 맞춰져야 하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미루어 졌지만 하반기엔 할수있는 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오는 8월3-6일 열리는 어린이 한국전통예술여름캠프가 그 시작인데 이후 많은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켈거리 여성회의 한 일환으로 K.kimchi라는 회사를 오픈해서 김치를 만들어 마트에 납품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음식도 알리고 열매되지 않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성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주정부 농업 및 IT 육성정책 눈여겨 봐야

Q: 그러면 이민은 언제 오셨나요?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지요?

A: 저는 1974년에 바로 켈거리 왔습니다. 그 때는 1인당 200불만 가져갈 수있는 시대라 가난하게 시작해야 했지요. 그러나 일자리는 쉽게 구할수있었고 물가도 저렴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켈거리 한국교민이 80명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이민자 여러분들은 모두 열심히 해서 켈거리에서 (...3 페이지에서 계속)

서울 BBQ 레스토랑



중화요리
개시!!

짜장면

~~\$10.99~~ \$7.99

Regular 시니어(65+) 디스카운트



*6 or More 그룹으로 방문시
*디너 올유캔잇 주문시
전체 Bill에서 추가 10% 할인

All You Can Eat Shrimps Promotion

(Dinner 올유캔잇 주문시)

2020년 12월말까지 오후 5~6시 사이에 방문 시 디너 올유캔잇 \$34.00 -> 29.89/person 해피 아워 가격 적용



Korean BBQ

Tel: (403) 243-7970

43 Ave. 42 Ave.

Chinook Downtown

H Holiday Inn

39 Ave. Station

All You Can Eat

4336 Macleod Trail S.W. Calgary, AB